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IN LENT

주후 2022년 4월 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통일 47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8 번 사순절 (5)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Luke) 1029-37	채희원 집사
찬 양 Anthem	“십자가의 갈”	찬양대
설 교 Sermon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Who Will Be The Neighbor?)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꽃들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4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고,

문제 앞에서 크게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면서도,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더 이상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빛 가운데 단정히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일 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개역개정 **눅10:36**)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NIV **Luke10:3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3 (주일)	4/4 (월)	4/5 (화)	4/6 (수)	4/7 (목)	4/8 (금)	4/9 (토)
	레6	레7	레8	레9	레10	레11,12	레13
본문	시5,6	시7,8	시9	시10	시11,12	시13,14	시15,16
	잠21	잠22	잠23	잠24	잠25	잠26	잠27
	골4	살전1	살전2	살전3	살전4	살전5	살후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4/6 오후7:30)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나” (삿17:1-13)
토요 새벽기도회 (4/9 오전6:30)	“너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시76:1-12)

지난 주일(3/27)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10)-“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눅 13:6-9)

포도원을 소유했던 어떤 한 사람(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포기하고, 대신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은 것입니다. 그만큼 무화과나무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컸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심었던 무화과나무에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자, 포도원 주인은 (결국)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종(포도원 지기)에게 명합니다. 그러자, 종(포도원 지기)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눅13:8)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의 노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수고를 대신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첫째,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며,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고, 2)둘째, 포도원 지기로 묘사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더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기를 여전히 기대하신다는 사실이며, (마지막으로) 3)셋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도,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유보되었던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